

자율개선 탈락 5개 대학 사활 건 구조개혁

조선대·순천대·남부대·송원대·세한대, 교육부에 혁신안 제출
2단계 평가 1~2곳 구제 ... 또 탈락 땀 '부실대학' 문 닫을수도

조선대와 순천대를 비롯한 남부대·송원대·세한대 등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이 사활을 건 구조개혁과 혁신안을 추진키로 해,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정원(10%)을 감축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이들 5개 대학은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하는 교육부 2단계 평가에 대비해 자체 구조개혁안과 특성화 전략, 혁신안 등을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자율개선대학(131개)과 전국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이번 평가를 통해 구제할 12개 대학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 중 광주·전남지역에선 1~2곳 정도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역량강화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로부터 연간 20~3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우려가 커지면서 2단계 평가에 생존을 걸고 있다. 대학마다 학사 개편안이나 혁신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생존을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이유다.

조선대는 '대학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정원을 124명 감축하고, 기존의 17개 단과대학을 13개로, 86개 모집단위를 76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사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학교측은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소방, 심리, 치매, 재활 등 관련 학과들을 모아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전대학'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산업적·문화적 세계 흐름에 발 맞춰 미래 교동수단으로 예상되는 드론형 자동차 개발 및 전문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와 지역문화와 한국문화산업을 선도할 'K-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 신설을 골자로 한 특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구조조정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지난 1월 초부터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학과 및 단과대학 설명회, 학생회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대학 측은 전했다.

순천대는 '정촌 도약과 지속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자율·도전적 학습환경 조성, 스마트 융합 교육 실행,

학생 성공을 위한 포용적 지원, 융합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체제, 교육여건 등 분야별 혁신 방안이 계획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송원대는 대학의 변화를 이끌 중장기 계획으로 '점핑 송원(Jumping Songwon) 2025+'를 수립했다. 단과대와 특성화 학과 등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 조직도 슬림화했다. 남부대는 보건·웰빙과 미래형 부품 소재 특성화를 강조했다. 보건·웰빙 분야 특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테스트, 3D 프린터 등 인프라를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한대는 실무중심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학사 구조 개편 등 계획을 마련했다. 혁신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해 융합·상생 특화 프로그램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장관 후보 2명 낙마

靑 "국민 눈높이 못맞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특히 조동호 장관 후보는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명철회됐다.

〈관련기사 3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1일 오전 11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자진사퇴 이후 약 18개월 만이기도 하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수석은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벚꽃 만발 ... 봄이 왔나 봄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에 활짝 핀 벚꽃이 피란 하늘과 어우러져 한복의 그림을 연상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알립니다

동주문학상 공모



광주일보사·'시산맥' 공동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운동주는 암울한 일제 식민지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입니다. 그의 '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이 '동주문학상'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동주문학상'을 제정, 공동 운영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동주해외작가상'도 공모합니다.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문학상에 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 4회 동주문학상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 모집 부문: 시 50편 이상
- 마감: 2019년 8월 31일 ▷ 상금: 1000만원
- 응모 요령: 시집 한 권 분량을 시집 발간 형식으로 정리해 메일로 발송 (dalssoo@hanmail.net)
- 예심(심의위원) 본심(별도 심사위원 위촉), 11월 시상 및 수상시집 발간

제 4회 동주해외작가상

- 공모 분야: 시(한글) ▷ 대상: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 거주하는 시인
- 응모 작품 수: 5편 이상 10편 이내
- 마감: 2019년 8월 31일 ▷ 상금: 300만원
- 응모 요령: 이메일(poemntss@hanmail.net) 접수
원고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약력, 전화번호 기재)
문의 02-764-8722.

光州日報社

워라벨 시대, 문화관광을 키우자
'컬투어'가 뜬다 ▶ 18면

KIA 젊은 마운트 이어 던지기
kt 타선 저지 ... 최하위 추락 막았다 ▶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雪花秀

고귀한 적응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으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응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신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TIMETREATMENT
INVIGORATING CREAM
진설크림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